2025-12-01

HI FX Brief

달러-원, 위도 아래도 막혔다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12월 금리인하 기대감에 달러 약세

- 소매판매 지표 부진 등으로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11월 중 가시화되었던 자금경색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음도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
- 유로화는 한 주만에 반등하면서 1.16달러선에 육박함. 달러 약세, 러-우 종전 협상 기대감 및 파운드 강세 폭 확대 등이 유로화 반등 요인으로 작용함
- 엔화도 전주 대비 강보합세를 기록함. 경기부양책 재료 소진과 더불어 일본 국채 금리 상승 등이 엔화 추가 약세를 제한함
- 역외 위안화는 최근 강세 기조가 이어짐. 위안화 강세 요인은 부재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위안 강세 흐름을 지지하고 있음
- 호주달러는 큰 폭 상승함. 달러 약세 속에 원자재 가격 반등이 호주달러 강세로 이어짐
- 달러-원 환율은 전주대비 소폭 하락함.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흐름이 이어졌고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기대감도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달러-원 환율은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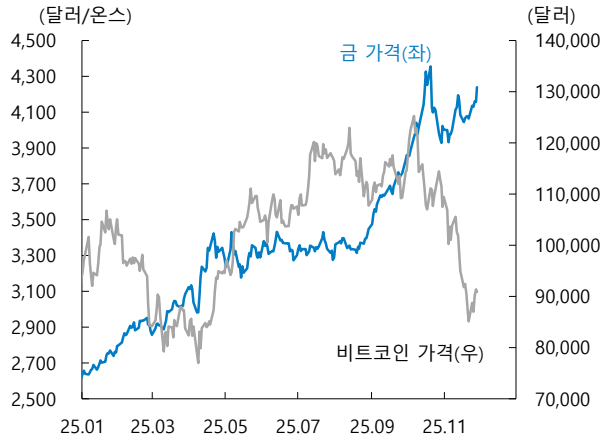
	11월 28일 종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5	-0.72	-8.32
유로-달러	1.160	0.74	12.01
달러-엔	156.2	-0.15	-0.65
역외 달러-위안	7.07	-0.48	-3.64
호주달러-달러	0.66	1.47	5.85
달러-원	1,466.8	-0.32	-0.37

달러-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

금주: 12 FOMC 회의 경계감으로 박스권 등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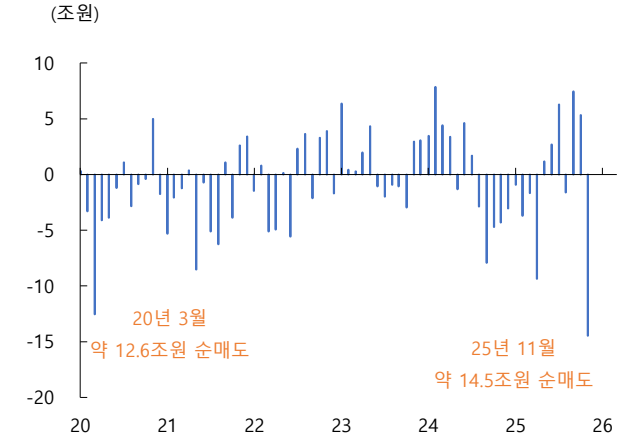
-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외환시장 관심은 12월 FOMC 회의 결과에 집중되는 모습임. 따라서 12월 FOMC 회의 경계감 등으로 달러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달러-원 환율 역시 개입 경계감과 추가 상승 기대감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할 것임. 12월 FOMC 회의 이전까지 국내 주식시장과 엔화 흐름에 연동하는 장세를 예상됨. 특히, 11월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이 12월에도 매도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매수세로 돌아설지를 중요 변수임.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450~1,480원으로 예상함

그림1. 주요 자산시장 하락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임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11월 거래소 기준 외국인 주식순매도 규모가 20년 3월 수준을 상회하는 약 14.5조원을 기록함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